

# 『고등학교 日本語讀本』에 관한 고찰\*

韓中瑄\*\*

## 〈요지〉

본고는 제2차 교육과정기 일본어 교과서인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上)(下)에 관한 분석과 1973년도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과정으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는 시대적 상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아 왔던 세대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이로 인해 일본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1973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게 된 것이다. 물론 이전에 특별한 상황이지만 제주도에서 1967년부터 오행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1972년 7월5일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교과과정에 넣어 교육하도록 지시한 후, 바로 이듬해인 1973년부터 고등학교에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어 일본어 교육사에 획기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리하여 광복 후 28년만인 1973년 3월5일 첫 고등학교용 일본어 교과서가 발행되게 된다. 교과서의 명칭은 『고등학교日本語讀本』(上)이다. (下)권은 그 다음해인 1974년1월10일 발행된다.

이 일본어 교과서는 다른 제2외국어와는 달리 단일 검인정교과서로 일본의 문화 사회의 이해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외국어 학습과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발전 모습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다.

논문분야 : 일본어교육

키 워 드 : 일본어독본, 교과서, 교육과정, 일본어교육, 고등학교

## 1. 머리말

본고는 제2차 교육과정기 일본어 교과서인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上)(下)에 관한 분석과 1973년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상황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일본어 교육의 찬반에 관한 논의와 일본어 교과서에 대해 『출판문화』(1973년4월호)에서는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일본어·일본서」라는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sup>1)</sup>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조문희(19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본어 교육사를 시기별로 조사하여 기술한 것으로 이 분야 연구에 기초가 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金賢信(2005)의 연구는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일본어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金義泳(2012)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관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으며, 유수정·박삼헌(2012)에서는 교과서의 ‘일본’ 표상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이어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뒤에, 『고등학교 日本語讀本』과 언론 내용, 당시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 (NRF-2012S1A5A2A03034514).

\*\* 영동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일본어학

1) 『출판문화』(1973년4월호)에 「出版物을 통한 日語의 受容姿勢」 「日語教育과 高校用日本語讀本」 등의 글이 있다.

일본어 교육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의 수정 출판되는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1973년 초판 이후 간행된 아래 자료를 이용했다.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上) 1973년 초판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下) 1974년 초판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上) 1974년판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下) 1975년판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上) 1975년판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下) 1977년판

교과서의 어휘 분석을 위해서는 佐野洋(2003)의 프로그램인 CLTOOL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 기초가 되는 일반 학습서와 신문 기사 내용을 개관하여 당시의 일본어 교육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서 일본어 교육 내용을 기술한다.

## 2. 일본어 교육과정기 이전 일본어 교육

우리나라 교육과정기는 교수요목기(1946년-1954년)에 이어 제1차 교육과정기(1954년-1963년), 제2차 교육과정기(1963년-1974년)로 시작된다. 일본어 교육은 제2차 교육과정기 후반인 1973년부터 시작한다. 1945년 광복 이후 교육기관에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된 것은 1961년 한국의국어대학교에 일본어과가 개설된 이후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식으로 1973년부터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주도에 일본 관광객 급증으로 일본어 수요가 늘어 1966년 4월 18일 제주도를 방문한 박정희대통령은 관광산업 요원 양성을 위해서 오현고등학교에 관광과 신설을 지시하여, 1966년 5월30일 인가되었고, 1967년 3월부터 관광과 학생들에게 일본어 수업이 실시된다.<sup>2)</sup>

이러한 정규교육으로서의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광복 후 일본어 교육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 1950년대 일본어 교육

1951년 제1차 한일회담 이후 계속되는 일본과의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예상하여 일본어 필요성이 제기된다. 195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어 학습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습서 중 『알기쉬운 日本語』와 『日本語 첫걸음』의 머리말에 일본어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때마침 한일회담이 재개되어 일본 측이 성의만 보인다면 머지않아 한일국교가 열릴 것으로 믿거니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우리들의 새 과업과 활동무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일본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의 침략야욕을 막기 위한 무기로서도 역시 일본어를 알아야 할 것이다.」<sup>3)</sup>

「먼저 이 책을 엮에 되 동기에 대하여 두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다. 즉 왜색일소(倭色一掃)는 당연한 우

2) 편찬위원회(2002), 『五賢高等學校50年史(1)』 제주:오현고등학교, p.168

3) 編輯部(1957) “머릿말” 『알기쉬운 日本語』 서울:螢雪文化社

리의 의무이지만 「敵을 완전히 무찌르기 위하여서는 敵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정의(定義)에 붙이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둘째로는 大學 二 학년에 다니는 동생이 教授에게서 적어 받은 研究, 參考書籍이 거의 日本書籍이고 그것을 구해들고도 단지 「知識人の 文盲」을 한탄만 하고 있는 딱한 사정을 동정하는 나머지, 감히 붓을 들기로 한 것이다.<sup>4)</sup>

위 일본어 학습서의 머리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어를 모르는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일본을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본어를 학습서를 편찬하고 있다. 195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어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2.2. 1960년대 일본어 교육

1960년대에는 소위 일본 붐이 일어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60년대 대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기 전 광복을 맞이하여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된다. 1960년 「日本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兪鎮午 씨와 李御寧 씨의 대담에서 일본어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눌 정도이다.<sup>5)</sup> 일본어 모르는 세대가 성년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일본어 수요가 생긴다. 광복 후 첫 일한사전인 『표준일한사전』이 1960년 4월 20일 형설문화사에서 간행되기도 한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일본어 학습서라 할 수 있는 『標準日本語教本(一)』은 1961년 10월 10일 초판이 발행되고, 1962년 改訂版, 1964년 增補版이 간행된다. 이 『標準日本語教本(一)』의 머리말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성인의 일본어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今年부터 外國語大學에 日語科가 設置되어 成人에게 日本語를 初歩부터 가르치는 方法을 摸索하게 되었습니다. 勿論, 일본어는 우리에게 다른 外國語보다는 쉬운 條件이 여러 가지 있으나, 過去에 日語를 배운 사람들의, 쉽다고 하는 既成觀念으로써, 無軌道하게 飛躍하는 方法으로는 젊은 世代層에게 到底히 成果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日語는 嚴然히 未知의 한 外國語인 것입니다.」<sup>6)</sup>

이 시기에는 대학생에게 일본어를 기초부터 가르쳐야 하는 학습과정이 요구되어 외국어로서 일본어를 학습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문학 작품이 번역이 시작되어 일본문학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다. 그리고 왜색문화가 금기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일본노래를 번역한 책<sup>7)</sup>이 발행되기도 하여 일본 대중가요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도 한다. 일본어 교육은 강독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회화를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일본어 교육을 위한 학습서로 『日本語學習會話레코오드북』<sup>8)</sup>이 1966년 발행된다.

## 2.3. 1970년대 일본어 교육

1970년대 들어서서는 일본어를 교육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온다. 李勳鍾(1975)의 「日語教育和 主體性」이란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4) 編輯部(1958) “책머리에” 『日本語 첫걸음』 서울:文洋社

5) 兪鎮午·李御寧(1960) 「日本을 말한다」 『새벽』 (1960년 7월호), 서울:새벽사 pp.122-133

6) 朴成媛(1961) 『標準日本語教本(一)』 서울:壯文社, 朴成媛(1962), 「日本語 音韻의 特殊性」 참조

7) 편집부(1960) 『日本歌謠曲集』 서울:英文社

8) 中村完·李惠伯(1966) 『日本語學習會話레코오드북』 서울:翰林出版社

「日本 것이라면 저 밤중에 旅館街를 흐느끼며 울며가는 按摩師의 피리소리까지도 소름끼칠 듯이 싫어지는 우리의 거의 체질화된 厭惡感 그러나 가까울 수도 또 멀 수도 없는 나라가 日本이다. 특히 오늘날 두 나라의 關係會談마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運命共同體와 같은 처지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感情的으로만 처리해 버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중략)- 그러나 일본말 마디나 얇으로써 현연히 저들의 밑에 들어도 안 되겠지만 日語 배우는 것을 저들에게 숙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겠다. -(중략)- 東洋天地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가 日本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의 精粹를 빼낼 수 있는 데까지 빼내어 배워야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일시적인 感情 따위에 얽매어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나는 본다.」<sup>9)</sup>

1970년대 들어서서는 일본어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의가 거듭되지만 결국 일본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미 일본어 수요가 급증하여 일본어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전이 간행되었다. 『民衆잇센스 日韓辭典』은 1973년 간행되었지만, 이미 이 사전 편찬 작업은 1963년 시작하여, 민중서관과 1968년 간행계약을 맺어 사전 작업을 계속하여 1973년 11월 15일에 초판을 간행한 것이다<sup>10)</sup>. 그리고 『동아신크라운 日韓辭典』은 1965년 가을부터 일한사전 편찬을 기획하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가 제2외국어로 시작된 1973년 초고를 완성하여 1978년 초판이 간행된다.<sup>11)</sup> 이와 같이 이 시기의 일본어 교육 시장은 경쟁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본어 교육을 받고 사용하는 시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 일본어 관련 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한다.

### 3. 일본어 교육과정 시작

1972년 7월5일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교과과정에 넣어 교육하도록 지시<sup>12)</sup>한 후, 바로 이듬해인 1973년부터 고등학교의 일본어 교육이 실시된다. 당시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는 배경을 다룬 신문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교부는 朴大統領의 지시에 앞서 오래전부터 日本語 교육 실시를 위한 문제점을 검토해 왔으나 36년 간의 일제통치시절의 쓰라린 기억과 역사상 융화하기 어려웠던 韓日 두 나라 사이의 적대 감정 등으로 이를 忌避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문교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몹시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교부는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 문화 등의 교류가 잦아졌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日本의 자본투자자와 기술협력이 급격히 늘고 있는 地政學的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통감해 왔으며 이번에 朴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본격적인 일본어 교육의 실시를 보게 된 것이다.」<sup>13)</sup>

9) 李勳鍾(1975) 「日語教育和 主體性」 『語文研究』 (제3권제4호) 서울: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690-691

10) 安田吉實·孫洛範(1973) 『民衆잇센스 日韓辭典』 서울:民衆書館

11) 편집부(1973) 『동아신크라운 日韓辭典』 서울:동아출판사

12) 경향신문기사(1972.07.05). <朴대통령 지시“日語, 第2外國語로 教科課程에 넣어 技術協力 넓히도록”>

13) 매일경제신문기사(1972.07.08) <教科書 편찬 서둘러야>

이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에 의해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정규 교과 실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일, 즉, ❶ 교육과정령, 교원자격 검정령, 대학의 학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 ❷ 日本語 담당교사 양성 ❸ 교과서 편찬 및 공급 등 처음에는 부작용이 따르기도 했다.<sup>14)</sup> 이러한 과정에서 1973년은 일본어 교육이 실시된 획기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일본어 교육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이 완성된다.

일본어는 1973년 2월 14일 제 2차 부분 개정(문교부령 제 310호)에서 제 2 외국어로 채택, 신설함으로써 5개 국어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1973년을 기점으로 일본어 교육의 발판을 마련한 획기적인 교육 과정기로 본다.<sup>15)</sup>

○ 문교부령 제310호(1973.2.14) 개정지시문 < VIII. 일본어 >

1. 지도 목표

- 가. 현대 일본어의 발음과 기본어법을 익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말과 글을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간단한 발표력을 기른다.
- 나. 일본어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올바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다. 일본의 문화·경제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 협조심을 기르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다지게 한다.

2. 지도 내용

- (1) 언어 기능 가. 듣기와 말하기 나. 읽기 다. 쓰기
- (2) 언어 재료 가. 어휘 나. 소재 다. 문형 라. 문법 사항

3. 지도상의 유의점

- 가. 항상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중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계발하도록 수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 나. 문법 설명 및 번역 위주의 강의식 수업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 다. 발음 지도에 있어서는 일본어 특유의 청음, 탁음의 구별과 억양 등을 정확히 하도록 유의한다.
- 라. 정확한 발음과 듣기의 지도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용하도록 한다.
- 마.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단어나 지식의 암기, 이해보다 이미 습득한 언어 자료에 의한 반복 수련과 응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바. 일본어 사건의 사용 방법을 지도하여 학생이 자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이 완성된 것은 1973년 2월 14일이다. 시기적으로 『고등학교日本語讀本』(上)이 간행된 것이 1973년 3월 5일인 것으로 보면 법령을 완성하여 교과서 편찬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교과서 편찬과 법령 작업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문교부편수관이었던 朴順萬은 이 법령 중 지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www.kci.go.kr

14) 매일경제신문기사(1972.07.08) <教科書 편찬 서둘러야>

15) 교과과정·교과서연구회편(1990) 『韓國教科教育課程의變遷』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p.548

특히, 「지도내용」 중 언어소재는苦心하여, 日本의 文化·經濟·社會를 소개하는 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나라의 生活經驗과 전통에서 많이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새마을運動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우리 民族의 近代化事業에의 執念을 다룬 내용을 많이 담아 躍進의 드높은 氣象과 民族的 矜持를 살리는데 留意하였다. 草創期의 産婆役으로서, 敎育課程制定 以外에 學習基本語彙와 學習基本文型을 選定한 審議委員 諸氏의 활동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sup>16)</sup>

이와 같이 일본어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고등학교日本語讀本』(上)표지(그림1)부터 일본 나라현(奈良県)에서 발견된 다카마쓰(高松) 고분 벽화 그림을 사용하였으며, 『고등학교日本語讀本』(下)표지(그림2)에는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의 사진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문화 전통의 금지를 내세우고 있다.

#### 4.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體裁

광복 후 28년 만에 일본어 교육의 첫 교과서가 발행된 것은 1973년 3월 5일이다. 교과서의 명칭은 『고등학교日本語讀本』(上)이다(그림1)(그림3). 이 교과서 표지와 출판 간행을 알 수 있는 서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고등학교日本語讀本』(下)권(그림2)(그림4)는 그 다음 해인 1974년 1월 10일이다.



그림 83



그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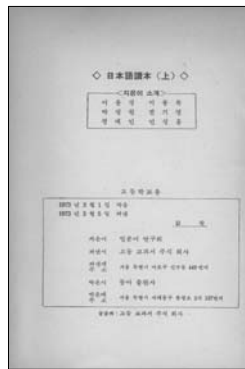


그림 85



그림 86

교과서 判型을 보면 소위 당시 교과서 크기인 가로 14.8cm×세로21cm로 출판 되었다. 한문교과서와 이 일본어독본은 세로형 편집 편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한문교과서의 편집 체계 즉, 표지, 면지, 표제지 등 거의 같은 편집 체계로 『고등학교日本語讀本』이 제작되었다. 『고등학교日本語讀本』의 발행일, 저자, 출판사, 구성, 사용기간을 정리하면 (표 1)다음과 같다.

16) 朴順萬(1973), 「日語敎育과 高専用日本語讀本」 『出版文化』(1973년4월호), 서울:大韓出版文化協會, p.8

〈표 1〉 고등학교일본어독본(상)(하) 서지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上)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下)
① 발행일	① 1973년 3월 5일	① 1974년 1월 10일
② 저자	② 일본어연구회 (이윤경·이봉복·박성원·전기정·정재인·민성홍)	② 일본어 교육연구회 (김우열·최창식·문승연)
③ 출판사	③ 고등교과서주식회사	③ 고등교과서주식회사
④ 구성	④ 39과 / 190쪽	④ 31과 / 261쪽
⑤ 사용기간	⑤ 1973년-1978년	⑤ 1974년-1978년

저자는 (上)권에는 일본어연구회, (下)권은 일본어 교육연구회로 되어 있다. 회원 저자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sup>17)</sup> 집필자의 구성은 대학교 교원과 주일대사관 직원이 참가하고 있다. 당시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고등학교 현장의 일본어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를 제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윤경 日本 東京女子師範學校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봉복 日本 京都女大 졸업, 국제대학 교수  
 박성원 日本 東京女子大學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기정 日本 早稻田大學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재인 日本 奈良女子高等師範學校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민성홍 日本 金沢市 出生,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우열 京城帝國大學 졸업, 주한일본대사관 공보관실 조사관  
 최창식 주일대사관 홍보참사관  
 문승연 日本女子大學 졸업, 이화여대 강사

(上)권 앞표지에 이은 면지에는 「일본전도」 지도(그림5)가 있고 이 지도의 지명은 당시 1959년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표기법 원칙에 따라 일본 지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뒤표지 면지에는 일본 皇居 앞 和田倉噴水公園에서 도쿄타워 방향의 사진(그림6)을 게재하고 있다.

17) 저자의 약력은 다음 문헌을 참조한 것임.

李銳炅·李鳳福(1975) 『新日本語讀本-高級-』 서울:三信書籍  
 朴成媛(1961), 『標準日本語教本』(一) 서울:壯文社  
 全基定(1969), 『現代日本語會話』 서울:보성문화사  
 鄭在仁教授略歷(1986), 『日本文化研究』(제2호), 서울: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문화연구회  
 閔聖泓(2010), 『茶の間のことばをものにしてみませんか』 서울:피오디월드  
 金宇烈(1975), 『고등학교 日本語』(上), 서울:박영사  
 李忠雨(1980), 『京城帝國大學』 서울:多樂園  
 文丞娟(1994), 『基礎日本語』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그림 87



그림 88

지명 표기는 「토오쿄오 · 추우쿄쿠 · 큐우슈우 · 쿄오토 · 오오사카」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당시 일본어 표기에, 장음을 표기하고 있으며, 두음에는 격음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下)권 앞표지 면지에는 「朝鮮通信使の行列」 그림(그림7)이 게재되어 있으며, 뒤표지 면지에는 「日本名所の略図」 사진(그림8)이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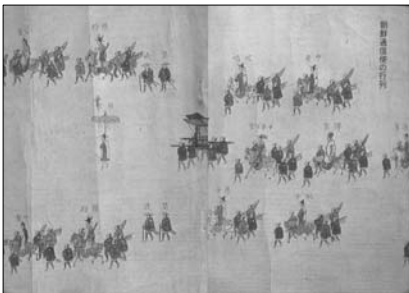


그림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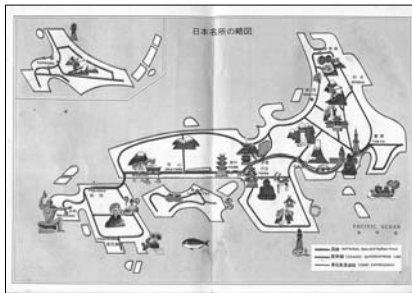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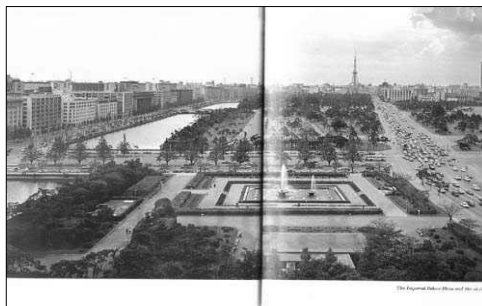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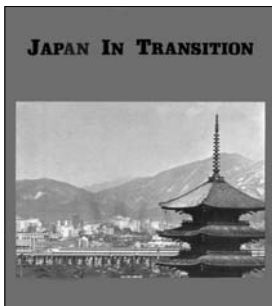


그림 90

그리고 교과서 (下)권 내지에는 「1974年 5月, 9年がかりて完成した東洋最大最初の現代的大規模な仁川港」 사진과, 「東京 テパートの屋上にある子どもの遊び場」 사진, 「大阪 EXPO70會場」 사진, 「浅草観音寺の五重の塔」 사진이 게재되어 있어, 사진을 이용하여 일본과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교과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 중에는 1870년부터 1973년까지의 일본 홍보용 책자 『Japan In Transition』에서 책 표지를 (그림6)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림16)도 이 책안에 소개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 5.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특징

이 교과서를 편찬함에 다른 외국어와는 달리 민족정신의 주체성을 손상시키는 우려를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해 朴順萬(1973)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日本語教育의 目的은, 獨佛語 등 다른 第二外國語와는 약간 다르게, 日本의 文化, 傳統의 理解, 受容에 엑센트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實用的 價値를 重要視하여 經濟活動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서 배우며, 우리의 矜持를 살려 우리 文化·傳統의 올바른 紹介傳達과 우리 意思의 呼訴力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기로 集約되었다.<sup>18)</sup>

문교부령 제310호(1973.2.14) 개정지시문 <Ⅷ. 일본어>의 「지도 목표」에서 「나. 일본어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올바른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른다.」를 중심으로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上) 내용에는 우리나라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과는 14 과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어휘도 우리나라 관련 어휘이다.

第一課 わが国, 第九課 むくげの花, 第十課 絵はがき, 第十七課 韓国の季節, 第十九課 南山の上から, 第二十一課 冬の夜, 第二十六課 秋夕, 第三十一課 ハングル, 第三十二課 緑の山造り, 第三十三課 建設の響き, 第三十六課 李舜臣將軍, 第三十七課 太極旗, 第三十八課 セマウル運動, 第三十九課 一九八〇年代のビジョン

일본을 소재로 한 과는 유일하게 「第三十四課 日本」인 한 개의 과뿐이다. 그리고 「第三十五課 韓国の古代文化と日本」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내용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편찬되어 있다.

이 교과 내용에서 한국관련 어휘로는, セマウル運動, 綜合庁舎, 高速道路, 国民学校, 經濟開發五個年計畫, むくげの花, 秋夕, ハングル, 太極旗, 壬辰の倭虜, 農産物, 龜甲船, 近代化事業, 工業立国, 自立經濟, 農村, 近代化 등이 있다. 이 어휘는 당시 사회상과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인물은 百濟の聖王, 李舜臣將軍, 世宗大王, 朴大統領, 柳寬順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가관을 우선시하는 어휘들이다. 한편, 일본 관련 어휘에서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尙馬, 尙岐, 明日香村(奈良県), 高松塚 등이 교과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편찬 방향으로 제작된 교과서와 당시 일본어 교육에 관한 문제점으로 동아일본에서 고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학교에서는 대체로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나 최근 경제협력 등 일본과의 현실적인 협조관계를 생각할 때 고교에서의 일어교육이 불가피한

18) 朴順萬(1973), 「日語教育과 高商用日本語讀本」 『出版文化』(1973년4월호), 서울:大韓出版文化協會, p.8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어교육의 정책을 맡고있는 문교당국은 일어교육이 흑시나 학생들의 자주의식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고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교과서 「일본어독본(상)」은 편찬과정에서 「국적있는 교육」을 강조하는 문교부편수당국과 외국어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저자들과의 사이에 의견마찰이 생겨 다섯 차례나 내용을 수정하는 고역을 치렀다. 확실히 이 일본어 교과서는 영어 또는 독일어 교과서와는 달리 어휘나 문장패턴보다 자주의식과 우리의 현실을 부각시키는 내용선택에 더 힘들인 것 같다. 이 교과서의 내용을 대충 훑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와 같이 제1과에서부터 「와가구니」(우리나라)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고 전체 39과중에 「한글」「이순신장군」「새마을 운동」「태극기」「삼립녹화」「도로건설」「80년대의 비준」등 국책과 주제성을 담은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 34과 「일본」과 제 35과 「한국의 고대문화와 일본」에서 일본의 현실과 한일관계를 소개하고 있으나 대일감정의 과거와 현실을 참작해서 어휘하나 고르는데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sup>19)</sup>

이 『고등학교 日本語讀本』은 단일 검정교과서로 편찬되지만 사실 국정교과서와 비슷한 상황에서 편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보통 검정교과서는 다수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본어 교과서는 단일 출판사에서 단일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육부가 심의하여 인가한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편찬 방침은 국정교과서로 편찬 되는 제3차 교과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차차 일본어를 통하여 일본을 이해하려는 교과서 편찬 방향이 바뀌게 된다.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上), 『고등학교 日本語讀本』(下)의 제 1과 사진을 보면 아래와 같다. (上)권 제 1과에는 우리나라 태극기 사진(그림9)이 있으며,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下)권 제1과(그림 10)에는 1945년8월15일 광복이 되었고 우리의 염원인 통일에 관한 내용이다. 문장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다.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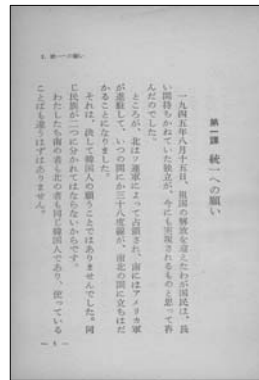


그림 10

이 교과서의 문법체계는 (上)권 附錄에, 動詞活用表, 形容詞活用表, 形容動詞活用表, 助動詞活用表를 제시하여, 문법은 일본 학교문법체계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사의 활용의 종류에는 五段活用·上一段活用·下一段活用·カ行變格活用·サ行變格活用으로 구분하였으며, 基本形은 「原形」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基本形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등에서 사용하는 「原形」을 채택한 것이다. 활용

19) 동아일보신문기사(1973.05.21) <“쌘대 많고 배우기쉬워 選擇” 高校日語 교육의 現況과 問題點>

형은 未然形·連用形·終止形·連体形·假定形·命令形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教育漢字索引」과 39과의 「낱말풀이」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教育漢字索引」에는 音讀은 카타カナ로, 訓讀은 ひらがな로 표기하고 있으며, 활용형에서 語尾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낱말풀이」는 과별로 뜻을 설명하고 있으며, 품사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下)권 附錄에 助詞의 하위 분류로, 格助詞, 接續助詞, 副助詞, 終助詞로 나누어, 用例와 用法를 제시하고 있으며, 접속조사에는 활용형 접속을 기술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上)권과 동일한 형태로 31과를 과별로 낱말에 품사정보와 의미를 설명한 「낱말풀이」를 부록에 실고 있다.

## 6.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수정

교과서 집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1973년 단시간에 완성된 교과서의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내용 수정은 거의 없고, 사진 교체를 많이 하고 있다.

(上)권은 1973년 초판, 1974년판, 1975년판, (下)권은 1974년 초판, 1975년판, 1977년판을 조사했다.

(上)권은 1973년 초판과 1974년판에는 사진(그림11)이 없었는데, 1975년판에는 표제지에 도자기 사진(그림 12)을 넣고 있다. 또한 표제지 서명, 저자, 출판사항이 「高等學校, 日本語研究會, 高等教科書株式會社」로 한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본문 안에 사진이 많이 교체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순신장군 영정」 사진(그림13)이 「이순신장군 동상」 사진(그림14)으로 바뀌었으며, 일본을 나타내는 사진이 거리풍경 사진(그림 15)에서 교토의 도지(東寺)(그림16)사진으로 교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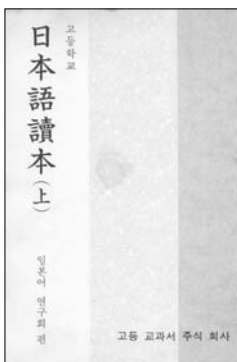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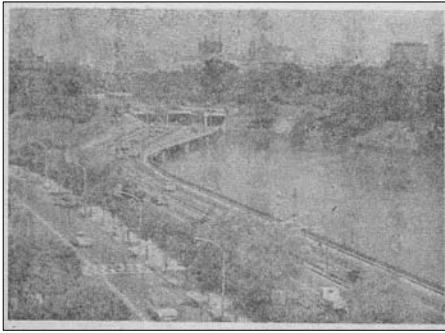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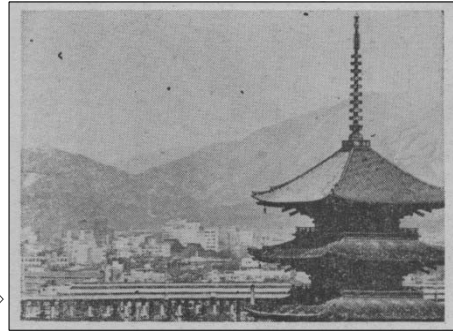


그림 16

(下)권에서는 (上)권만큼 사진 교체는 없지만, 수정한 곳이 여러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첫 교과서 표지 한자체가 약자로 바뀐다. 즉, 1977년판에서는 표지의 「日本語讀本」과 같이 정자로 되어 있던 것을 (그림17)과 같이 「日本語讀本」으로 약자로 표기하고 있다. 1972년부터 우리나라 교육에 한자 교육이 시작 되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漢字體와 다른 漢字體를 사용하고 있어 처음 일본어 교육에 우리나라 漢字體와 구분하여 차이점을 학습하는 문제점이 있어 교과서 표지부터 수정하고 있다.

1975년판에서는 (上)권과 동일하게 한글이었던 표제지 서명, 저자, 출판사항이 「高等学校, 日本語教育研究会, 高等教科書株式会社」로 한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第十九課 生け花에서 일본 꽃꽂이 사진(그림18) (그림19)이 바뀌었고, 第十八課 李退溪先生の 사진(그림20)을 상체 사진(그림21)으로 확대된 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림 17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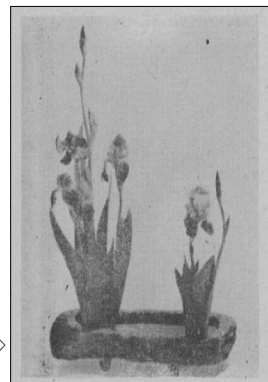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리고 본문 내용 수정으로는 第三十一課 ミレーの晩鐘(pp.198-199)에서 [ん]을 [ない]로 바꾼다.

わたしたちも、そうしたことを祈らねばなら**ん**のだと母はいった。  
 わたしたちも、そうしたことを祈らねばなら**ない**のだと母はいった。

## 7.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문자 분석

교과서의 어휘 분석을 위해 佐野洋(2003)의 프로그램인 CLTOOL를 이용하였다.<sup>20)</sup> 이 프로그램은 어휘의 분포, 한자의 사용, 가타카나의 사용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본고에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의 사용분포를 조사하고, 한자와 가타카나의 사용을 살펴본다. 한자 가나 문자사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上)권



(下)권



20) 佐野洋(2003) 『Windows PCによる日本語研究法』 東京:共立出版

위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총어수(延べ語数)에서 (上)권은 히라가나 60.03%, 가타카나 2.12% 한자 26.39%이고, (下)권은 히라가나 62.90%, 가타카나 2.50% 한자 26.81%이다.

별개어수(異なり語数)에서는 (上)권은 히라가나 8.25%, 가타카나 6.55% 한자 83.55%이고, (下)권은 히라가나 5.24%, 가타카나 4.96% 한자 88.17%이다. 가장 아래의 부분은 왼쪽 첫 번째 부분이 히라가나, 두 번째 부분이 가타카나, 세 번째 부분이 한자를 나타낸다.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독본은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자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일본어 교과서와는 한자 사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8. 『고등학교 日本語讀本』 자습서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면서 교과서만으로 일본어 교육이 시행되기 어려워 당시 여러 교과서를 이해를 돕기 위한 자습서와 학습서가 간행된다. 특히, 李鈞旻(1974) 『레코오드 딸린 日本語讀本(上) 註解書』(그림22)는 「正確한 標準 發音과 抑揚을 익혀 산 會話에 直結를 꾀한 學習用 레코오드」를 제작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본어 교육을 시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음흡입은 당시 한국외국어대학 강사인 熊田和子, 국제방송 아나운서 金聖範·李鍾明이 맡고 있다. 그 외, 1974년 1월에 창간된 『通信講義日日學習 日本語教室』(그림 25)에 『日本語讀本(上)』을 수록하여 설명하여 연재하고 있다. 당시 교과서의 내용이 일본어를 처음 학습하는 학생에게 어려움이 있어 실제 고등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朴成媛(1961), 『標準日本語敎本(一)』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었다.<sup>21)</sup>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22) 李鈞旻(1974) 『레코오드 딸린 日本語讀本(上) 註解書』 서울:省文社

(그림23) 편집부(1978) 『高等學校 日本語讀本(上) 自習書』 서울:陽明出版社

(그림24) 편집부(1978) 『高等學校 日本語讀本(上) 自習書』 서울:韓國學習教材社

(그림25) 편집부(1973) 『通信講義日日學習 日本語教室』(제1호-120호) 서울:韓日語學研究社

21) 오현고등학교 1973년 관광과 입학 1976년 졸업한 김영철 씨 담(談).

## 9. 결론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아 왔던 세대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이로 인해 일본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1973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게 된 것이다. 물론 이전에 특별한 상황이지만 제주도에서 1967년부터 옹현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 후 전국적으로 1973년부터 일본어 교육이 시작되어 그때 처음 편찬되어 발행한 교과서인 『고등학교 日本語讀本』은 우리나라 일본어 교육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교과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교과서 내용이 당시 우리나라 일본어 교육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과서를 분석하여 보면 실제 초급일본어 학습자에게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의 수가 다른 당시 일반 일본어 학습서에 비해 상당한 비율로 편찬되어 있다. 본고에서 초반에서 편찬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실제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내용 안에 삽화 사진이 교체되는 것이 많아 교과서 편찬에 삽화사진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필자는 일본어 교육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계속 수집해 가면서 우리나라 일본어 교육의 역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 【参考文献】

- 경향신문기사(1972.07.05), 〈朴대통령지시“日語. 第2外國語로 教科課程에 넣어 技術協力 넓히도록”〉  
 교과과정·교과서연구회편(1990), 『韓國教科教育課程의變遷』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p.548  
 金義泳(2012), 『韓國の日本語教科書に関する研究』 東京:早稲田大学大学院博士論文  
 金柱演(1973), 「出版物을 통한 日語의 受容姿勢」 『出版文化』 (1973년4월호), 서울:大韓出版文化協會, pp.2-4  
 金賢信(2005), 『韓國高等学校の日本語教育』 東京:一橋大学大学院博士論文  
 동아일보신문기사(1973.05.21.), 〈“쓰새 많고 배우기 쉬워 選擇” 高校日語 교육의 現況과 問題點〉  
 매일경제신문기사(1972.07.08), 〈教科書 편찬 서둘러야〉  
 朴成媛(1961), 『標準日本語教本』 (一) 서울:壯文社  
 朴成媛(1962), 「日本語 音韻의 特殊性」 『외대학보』 (제3집), 서울:한국외국어대학, pp.60-81  
 朴順萬(1973), 「日語教育和 高商用日本語讀本」 『出版文化』 (1973년4월호), 서울:大韓出版文化協會, pp.7-10  
 유수정·박삼헌(2012), 「일본어 교육의 정치성」 『교사와 교육』 (30-1), 건국대학교교육연구소, pp.75-10  
 兪鎮午·李御寧(1960) 「日本을 말한다」 『새벽』 (1960년7월호), 서울:새벽사 pp.122-133  
 李鈞旻(1974), 『레코오드 딸린 日本語讀本(上) 註解書』 서울:省文社  
 이종국(1988), 『大韓教科書史』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李勳鍾(1975), 「日語教育和 主體性」 『語文研究』 (제3권제4호) 서울: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690-691  
 조문희(1911), 『일본어 교육사(하)』 서울:제이앤씨  
 佐野洋(2003), 『Windows PCによる日本語研究法』 東京:共立出版  
 中村完·李愚伯(1966), 『日本語學習會話 레코오드북』 서울:翰林出版社  
 編輯部(1957), 『알기쉬운 日本語』 서울:螢雪文化社  
 編輯部(1958), 『日本語 첫걸음』 서울:文洋社

편집부(1960), 『日本歌謠曲集』 서울:英文社

편집부(1973), 『時事日本語研究』(12月 創刊號) 서울:時事日語社

편집부(1973), 『通信講義日日學習 日本語教室』(제1호-120호) 서울:韓日語學研究社

편집부(1978), 『高等學校 日本語讀本(上) 자습서』 서울:陽明出版社

편집부(1978), 『高等學校 日本語讀本(上) 自習書』 서울:韓國學習教材社

편찬위원회(2002), 『五賢高等學校50年史(1)』 제주:오현고등학교

〈 要 旨 〉

『高等学校日本語讀本』に関する考察

本稿は第2次教育課程期の日本語教科書である『高等学校日本語讀本』(上)(下)に関する分析と、1973年度の高等学校第2外国語教科課程で日本語教育が実施された時代的情況に関する内容を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日帝強制占領期間に日本語使用を強制された世代は韓国での日本語教育実施に対する拒否感を強く持っていた。これにより日本語教育の必要性を認識していながらも安易に行えない状況にあった。しかし、大統領の決断により1973年から高等学校で日本語教育が実施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付け加えると、それ以前の1967年から済州道の五賢高等学校では日本語教育が実施されていた。これは特別なケースである。1972年7月5日第2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教科課程に入れて教育するよう朴正熙大統領によって指示された。その翌年の1973年から高等学校で日本語教育が実施され、日本語教育は画期的な発展を遂げるようになる。かくして1973年3月5日に光復後28年ぶりに初の高等学校用日本語教科書が発行されるようになった。教科書の名称は『高等学校日本語讀本』(上)である。(下)巻は翌年の1974年1月10日に発行された。この日本語教科書は他の第2外国語とは違い、単一の検定教科書として発行された。この教科書は日本の文化社会の理解よりも韓国の經濟發展に役立つ実用的な外国語学習と伝統文化、そして發展の姿を紹介する事に重点を置いて編集されたのである。

論文分野：日本語教育

キーワード：日本語讀本, 教科書, 教育課程, 日本語教育, 高等学校,

■ 韓中瑄 (韓中瑄)

영동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cungseon@daum.net

- 投稿日：2013년 9월 30일
- 審査開始：2013년 10월 14일
- 審査完了：2013년 11월 13일
- 掲載確定：2013년 11월 18일